**양날의 검과 같은 기술의 도약**

6조 김지솔 오혜린 주현정

멀지 않은 미래에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용어는 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현대 사회 전반의 자동화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등의 모든 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며 기술이 융합되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일컫는다. 이 혁명에서 인공지능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초지능적 혁명이라고 불린다. 초지능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을 추구하는 데에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첫 번째이다. 버스나 비행기 그리고 차와 같은 물리학 기술은 무인 운송으로 대체되어 더 이상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단순 노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비슷하게 각종 보험업무, 금융업무, 의료 등의 대부분의 금전적 거래를 블록체인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은행을 가는 일은 없어진다고 보여진다. 합성 생물학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은 DNA분석을 통해 유기체 제작을 하여 심장병 이나 난치병 치료에 사용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세포를 변형시켜 사전에 병을 예방하는 것부터 병의 치료방법까지 연구하면서 우리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줄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을 위해 말벗이 되어주는 로봇도 생겨 마음의 병을 치료해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생산성을 높여주고 비용을 낮춰주는 미래의 기술들이 우리의 단순 노동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인간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도약적인 발전은 엄청난 변화와 함께 위기도 가져올 것이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거론하기 전에 인공지능과 로봇들로 인한 문제점들을 알아보자. “2016 인간과 기술의 미래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보면 ‘현재 인공지능의 핵심을 이루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강력한 점이자 무서운 점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은닉층의 존재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은닉층이 아마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다. 개발자조차도 예측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Ai가 진화하게 되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다양한 패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될 AI는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AI가 자아를 가지게 된다면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긍정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근로시장의 심각한 이슈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정보의 집중화 등을 통해 기술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노동 시장은 임금격차가 더욱 더 심화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는 이분화가 되고 중산층이 없어서 양극화가 된다.

그리고 AI들은 윤리적 의식과 책임감이 없다. 만약 AI의사가 실수를 하면 누구의 책임일까? 만약 AI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일까? 이러한 문제들로 AI연구는 우리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평을 받기도 한다.

미성숙한 대처로 인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AI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로봇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본다.